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 Sol-NURSING TIMES

Sol은 又松의 소나무를 뜻합니다.



제 1호 2011년 1학기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 Sol-NURSING TIMES

Sol은 又松의 소나무를 뜻합니다.

제 1호 2011년 1학기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 Sol-NURSING TIMES

Sol은 又松의 소나무를 뜻합니다.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SOL-Nursing Times

편집장 장두리  
발행처 우송대 간호학과 편집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사무실  
Tel: (042) 630-9290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정보과학관 3층

\* 1년에 2번 발행됩니다



## C O N T E N T S

- 04 [특집호] 학과장님 축하 및 인터뷰
- 05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소개
- 08 2011학년도 1학기 주요행사
- 10 [특집호] 떠나시는 Josh 교수님
- 11 학년별 이야기
- 12 [특집호] 간호학과 이모저모
- 14 [특집호] 편집부 소개





우송대학교 제 2학사 부총장 조원권

## Woosong Nursing Department

무더위가 기승하는 7월이 되었습니다. 날로 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소식지의 창간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창설한 이래로 참으로 많은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2009년 학과가 개설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는 학과장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필리핀 유수 대학들과 교류를 시작하였고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 또한 크게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의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통해서도 우송대학교 간호학과가 점차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음을 알수 있었고, 학생들이 국가와 세계에 기여하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 뿐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도 많은 노력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게 된 소식지 역시, 지금까지 쌓아온 이런 모든 역량이 알차게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일 것입니다.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 소식지를 학생들이 발간하겠다고 했을 때 '아! 이것이 간호학과 학생들의 자율성이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누구보다도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소식지가 한 층 더 풍요로워지고 발전하며, 매년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지를 만드느라 수고하신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간호학과 소식지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간호학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특집호] 학과장님 축하 및 인터뷰



학과장 이 현 주 교수

### Q.우송대학교 간호학과의 신설 동기는 무엇인가요?

A.우송대의 글로벌 특성과 간호학과를 결부시키면 시너지 효과를 내서 학교 발전과 더불어 국제적인 간호사를 양성하는 특화된 학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해서 간호학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 Q.간호학과 창설 초기의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A.지금은 학생들이 너무 잘해줘서 어려운 점은 다 잊어버렸어요.(웃음) 굳이 기억한다면 처음 1기 학생들의 영어수준이 국제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영어보강이 가장 시급했기 때문에 영어수업을 보강하기 위한 체제로 개편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학생들이 좀 힘들어 했어요. 영어수업을 너무 많이 하니깐 힘든 거죠. 그리고 신설학과이나 보니 멘토가 되어줄 선배도 없고, 국내자격증과 더불어 미국간호사 면허도 취득해야 하기 위해 더 많은 공부를 위해 야간자율학습도 시작했죠. 이 때 우리 학생들이 대학생 동안 놀고 싶은 생각도 있다 보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또한 공부에 집중하도록 전원 기숙사 사용을 해야 해서 대전 학생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학생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줬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결국 1기 학생들이 우리 학과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 주인공들이지요.

### Q.우송대 간호학과의 비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세계가 하나로 되어가고 있고, 많은 외국인 거주자들과 다문화가정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의료시장은 언어가 다른 사람들도 간호할 수 있는 간호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과 차별화된 영어집중교육과 제2외국어 커리큘럼으로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간호할 수 있는 글로벌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간호학과의 비전입니다. 언어가 장벽이 되어 대상자를 케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전인적인 간호를 할 수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비전을 갖다보니 국내 간호사 면허는 물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미국간호사 면허증을 같이 취득해야 겠지요.

### Q.학과장님이 정하신 목표는 무엇인가요?

A.우리 학생들이 우리나라 대상자뿐 아니라 외국인도 간호할 수 있는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 비전이자 목표예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해야 하고, 둘째로 간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면허라고 하는 허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1, 2학년 동안의 영어 집중프로그램 이외에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제 2외국어 수업을 강화했어요. 그리고 3, 4학년 동안에는 전공과 영어를 통합시켜서 전공을 영어원어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쯤 되면 우리 학생들이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간호사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해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대상자를 간호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지요.

### Q.우송대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A.처음 입학하는 학생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의 능력을 한정시켜 놓고 그 이상을 도전하면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식상한 말이지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을 무한대'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잠재능적인 능력들이 우리 대학에 와서 발휘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대학생들은 여러분들의 잠재능력을 끄집어내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남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디딤돌이 되어 주는게 나의 역할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같고 닮은 능력으로 또한 여러분들도 남들을 도와주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 Q.과 소식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A.우리학과 학생들이 수업과 공부량이 많다보니깐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호사가 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주위 선배들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때마침 우리 간호학과 공동체 속에서 한명 한명 작은 일이라도 서로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또한 이것이 학생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점이 우리 Sol-Nursing times의 가장 큰 의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담아서 우리 간호학과 모든 사람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고 지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간호학과의 하나의 큰 전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Sol-Nursing times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소개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국내유명병원들과 실습협약 체결



우송대학교 (총장 존 엔디컷) 간호학과는 지난 한 학기 동안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등 현재 국내의 우수한 병원들과 임상실습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각 협약식에는 병원관계자들과 간호학과 교수진들이 참석하여 산학협력에 관한 다양한 상호협력과 교류활동 등을 통해 향후 양기관의 발전적인 관계를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가 타 간호학과에 비하여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발전가능성을 보여준 실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같은 발전을 통해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앞으로의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산학협력현황

- ▶ 강남세브란스병원
- ▶ 건양대학교병원
- ▶ 국립공주병원
- ▶ 국군간호사관학교
- ▶ 대전동구보건소
- ▶ 대전서구보건소
- ▶ 미래여성병원
- ▶ 삼성서울병원
- ▶ 서울여성병원
- ▶ 신촌세브란스병원
- ▶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 한국산재의료원
- ▶ 충남대학교병원

☛ 유선지 기자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 미국 케네소주립대학교 Nursing Exchange Camp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와 미국케네소주립대학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꾸준한 교류를 통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두학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케네소주립대학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토폴 85점 이상인 학생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과운영의 주요 모토인 간호의 세계화에 한층 가까워졌다. 또한 이번 협약은 이전의 '영어몰입식' 커리큘럼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이외에도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현재 ▶St Cloud State University ▶Fairmount State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of Philippine ▶Okayama University 등 여러 해외 대학들과도 꾸준한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증진과 상호발전에 노력하고 있고, 복수학위도 추진 중에 있다.

☛ 지다혜 기자



## 겨울방학동안 미국 케네소주립대학교로 어학연수

학과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지난 1월 21일 부터 2월 20일 까지 약 4주동안 총 14명의 학생들이 미국 케네소 주립대학교로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이들은 그곳에서 영어공부 뿐 아니라 간호학 수업은 물론 케네소 간호학과와 실습실 체험 및 케네소 주립대학의 협력병원을 견학하는 등 견문을 넓히는 다양한 경험들을 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영어실력은 물론 현지 간호학과 학생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문화적으로도 한층 성숙해졌다는 후문이다.

유선지 기자

### 미국 케네소주립대학교로 어학연수를 다녀오고나서.... (연수후기)

#### 01. 송주은 (간호학과 2학년)

지도교수님 두 분과 14명의 1, 2학년 학생과 함께 한 달간 KSU를 방문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월요일-목요일에는 8:45am~2:30pm동안 IEP (Intensive English Program)수업을 듣고, 그 이후 시간엔 현지 간호학과 교수님들의 전공 강의 또는 견학을 했다. Coca cola museum, Atlanta historical museum, CNN, 동물원 등등 매우 많은 곳들을 견학하면서 미국문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을 가졌다. 그 외에도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직접 실습도 해보는 등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외국학생들의 수업참여도에 대한 것이었다. 한국에선 교수님 또는 주변 친구들의 눈치를 보느라 수업시간에 소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임하곤 했는데 현지 수업에참여해보니 그 친구들은 정답여부에 상관없이 언제나 스투럽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보고 많이 반성했다. 또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커졌다. 예전엔 단어, 문법, 악센트 같이 사소한 것들을 신경 쓰느라 외국인 앞에서면 제대로 말도 못했는데 막상 미국에 가보니 미국인들은 우리를 외국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걸 알게 되었다. 덕분에 이제 사소한 것들에 개의치 않고 외국인들과 좀 더 자신감 있게 대화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다. 또, IEP수업을 통해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에 대한 편견도 많이 버리게 되었다. 편견이 얼마나 내 자신에게 손해인지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느낀 것도 많았고 프로그램, 음식, 날씨, 사람들, 숙소까지 정말 황홀할 정도로 행복했던 한 달이었던 것 같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가고 싶다.



#### 02. 서다운 (간호학과 2학년)

미국연수는 저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영어를 그저 막연히 '무조건 해야 되 것' 단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생각해왔는데, 미국에 가서 직접 부딪히면서 느껴본 결과 '아...언어라는것이 서로 이해하는 의사소통의 하나의 수단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첫 수업에서 한국학생들과는 달리 수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생들의 모습에 놀랐으나, 며칠 정도 수업을 더 듣고 나서 '아...이렇게 있으면 안되겠다! 나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었고 이내 저도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1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바뀌어가는 저의 모습에 저 또한 놀랐습니다. 또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 할 수 있고 많은 친구들도 사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아무대없이 한국에서 온 낯선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에 감동했고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미국 어학연수는 1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3달이상의 간으로 다가왔고 미국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잊지 않고 스스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 Global 우수간호



국가경쟁력을 갖춘 전문간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현재 그에 걸맞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졸업과 동시에 국내는 물론 해외 간호사 자격증까지 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본 학과는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인성을 갖추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커리큘럼으로는 ▲주 20시간 영어수업 ▲제2외국어 수업 ▲원어민교수강의 ▲철저히 원서 위주의 전공수업 ▲수준별 소수인원수업(20명 이내) ▲의료통역반 운영 ▲TOEIC / TOEFL 위주의 수업 ▲간호실무 영어 및 실습강화 ▲NCLEX-RN 시험대비 집중 문제풀이 수업 등 이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영어위주의 수업을 시작할 때 예는 간호학과가 해내기엔 너무 무리한 사업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매학기 토익성적이 평균 100점 이상씩 급속도로 향상 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한학기만에 평균 160점이 향상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교내 토익 경시대회에서 3회 연속으로 1등을 배출해 내는 등 갈수록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탄력을 받아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주변을 놀라게 하고 있다.

▶ 이진우, 유선지 기자

## 우송대 간호학과 무엇이 다른가?!



### 간호학과 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는 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다른 대학과 달리 기숙사 안에서 선후배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사회를 경험 하고 선후배간의 관계를 증진시켜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방심은 금물! 엄격한 규정

전 학생이 학교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다보면 흐트러지고 헤이해질 수 있다. 하지만 우송대 간호학과에서 방심은 금물! 강의실 및 자율학습 시에는 슬리퍼, 체육복, 과도한 화장과 복장 금지 등 엄격한 규정을 통해 기숙사와 학교 공간의 구분을 지으며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를 함양한 단정한 간호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 1:1 지도교수 밀착지도

우송대 간호학과와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지도교수가 1:1로 학생들을 상담하고 밀착지도 하는 시스템이다. 학생들은 모두 담당 교수님을 배정받으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도교수님께 조언을 구하거나 1:1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학생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 학생들이 더욱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학생들을 위한 많은 지원!

우송대 간호학과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실습실이다. 간호학과 학생들을 위해 실습실을 마련해 현대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간호실무를 익히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기본간호학 실습실, 기초과학 실습실을 구비하고 있고 이번 여름방학 동안 시뮬레이션 센터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또한 많은 장학금과 해외연수 비용 지원 등으로 우송대 간호학과에서는 능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얼마든지 더 많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지다혜 기자

## 2011 학년도 1 학기 주요 행사

### 미국, 필리핀 교수님의 방문



▲ Manahan 교수님의 강의모습

2011년 5월 12일부터 5월 28까지 2주 동안 College of Nursing, UP Manila에서 Manahan 교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강의를 하였다. 2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외국식 수업을 접해 본 적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강의시간이 되었다. 필리핀으로 돌아가기 전 Manahan 교수님은 학생들과 이곳저곳을 관광하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Fairmont State University 교수님들과 함께

또한 5월 23일에는 Fairmont State University의 Boni(Dean, Nursing Department)교수님께서 우리 학과를 방문하여 미국 간호 현황과 관련하여 강의를 하였다. 강의가 끝난 후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하는 시간도 가지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Dean교수님은 “우송대 간호학과 학생들의 영어 실력에 놀랐다.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지금당장 우리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고 생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이지원 기자

### 우송대 간호학과 2011 엠티 가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가 4월 2일, 3일 이틀에 걸쳐 충남 논산으로 엠티를 다녀왔다. 친목도모와 단합을 위한 이번 엠티는 1,2,3학년이 한 조로 구성되어 서로를 더 아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 걸음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엠티는 체육대회, 장기자랑, 게임, 미스 우송 등 다양한 코너로

구성되었다. 이 중 체육대회는 조를 나누어 피구, 줄다리기, 말뚝박기로 진행되었고 장기자랑은 강당에서 1학년들이 조 별로춤 솜씨를 뽐냈다. 또한 스피드 퀴즈와 복불복 게임도 강당에서 이루어졌다. 이 날 교수님들과 전 학년이 한데 어우러져 웃고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간호학과 1학년 박혜리는 “엠티를 다녀와서 선배님들과 동기들과 더욱 친해져서 너무 좋다. 내년 엠티도 너무 기대된다” 며 이번 엠티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다.



➡ 엄영지 기자

### 시끌벅적 우송인의 체육대회

우송대학교에서는 5월 12일~13일 학생 모두의 열정과 패기를 느낄 수 있었던 체육대회를 맞이하였다. 우리 간호학과에서는 학업과 인원수 부족으로 인해 체육대회 출전을 미루어 오다가 올해 첫 참가하였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우송대 간호학과로서의 자부심을 한 층 더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첫 출전임을 무색하게 만들만큼 간호학과 모두의 뛰어난 운동실력과 적극적인 응원 덕분에 농구 4강 진출과 피구와 발야구 모두 예상 이상의 선전을 할 수 있었다. 짧은 기간의 체육대회였지만 우리 간호학과를 비롯해서 학교의 모두가 자신들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던 즐거운시간이었다.



➡ 이건우 기자

## 제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열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의 제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지난 5월 4일 오후2시 솔브릿지 국제대학 4층에서 열렸다. 이날 간호학과 3학년 33명은 이사장님을 비롯해 학부모님 등 200여 명의 내빈이 축하하는 가운데 선서식을 마쳤다. 선서식 축사를 맡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신혜경 교장은 “간호사관학교보다 더 열심히 하는 간호학과는 우송대가 처음이다. 우리 생도들은 좀 더 긴장해야

겠다.” 라고 하여 선서식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선서식을 마친 후 학부모님과 교수님이 한자리에 모여 간호학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과회도 마련되었다. 또한 어버이날 행사도 함께 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선서생들은 삼성서울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등에서 전공실습을 할 예정이다.

➔ 김규영, 엄영지 기자

### 색다른 첫 '경험' 3학년 정영옥

2011년 5월 4일, 평범한 일상으로 지나쳤을, 365일중에 한 날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지표가 될 '특별함'을 간직한 날이다. '특별함'을 준비할 때 1기라는 부담감과 어느새 간호사의 관문으로 들어서는 선서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당혹감이 주로 나를 지배했다. 드디어 D-day! 선서식을 기다리는데 자꾸만 눈물이 났다. 북받친 감정을 경희언니의 위로로 간신히 진정시키고 내 순서 때 단상에 올라가 SN뱃지를 받고, 촛불을 점화하고, 인사를 하고 내려왔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겠습니다'라는 여섯 글자의 무언의 약속과 같은 인사를 하고 난 뒤에 느낀 책임감이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선서식이 끝나고 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나와의 큰 약속을 한 느낌을 받았다. 그간 힘들게 지나온 날들은 앞으로 지낼 날에 비하면 힘든 게 아닐 것이라는 것, 그 지나온 힘겨웠던 날들은 내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살면서 꺾일 날도, 힘들어 우는 날도 수도룩 하겠지만, 선서식 때의 마음가짐을 늘 상 기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누군가 그랬다.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가슴까지이고 그것보다 더 긴 여행은 가슴에서 손과 발까지라고,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앞으로 살아갈 나의 더욱 긴 여행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배품으로 채워질 긴 여행을 위해받은 선물. 후배님들도 얼른 값진 선물을 받고 간호라는 이름으로 베푸는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 뜨거운 가슴과 함께 봉사하는 간호사가 되길 바라며-

### 나이팅게일 선서식 3학년 김혜지

유난히도 날씨가 화창하던 5월 4일, 저희 우송대 간호학과의 제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있었습니다. 간호학도로서 첫발을 내딛은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간호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때 공부에 지쳐 잠시 방향을 했던 저에게,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시들었던 저의 꿈을 다시 확고히 다지게 해주었던 시일이었습니다. 그 날을 위해 매일같이 열심히 연습하고, 행여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무척이나 긴장하고 설레던 그 순간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늘 너희들은 무엇이든 해내기에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 아이들 이라고 격려해주시며 이끌어 주신 교수님들의 따뜻한 말씀들도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후배들이 준비해준 노래에 친구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들이 마치 한 장의 파노라마처럼 스치듯 지나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다른 사람들에게겐 큰 의미를 지니진 않았지만, 저희에겐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시발점으로써 그리고 또한 예비간호사로서의 책임감을 부여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선서식을 빛내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과 많은 내·외빈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축하 속에서 무사히 제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기에 앞서 저는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 🎙️ 떠나는 Josh 교수님

## Q1. What do you think about nursing students?

**A:** At first I was surprised by the nursing students. They are even more kind and hard working than I expected. The nursing students continue to impress me with their positive attitude in the midst of heavy class loads and difficult curriculum. I'm inspired by their efforts in class and the progress they make over the semester.

## Q2. If you had to choose only one memorable moment, what would it be?

**A:** The most memorable moment for me was the night before the Nightingale Ceremony. All the nursing students came to practice for the ceremony. We rehearsed the order of events, speeches, and songs. I was touched by how perfect the students wanted the ceremony to be and how hard they worked on preparing for the special event. Even though they had classes, midterms, and university contests in addition to the ceremony, I could see their heartfelt effort in their tireless preparation. To me it summarized the ever positive and determined spirit of the nursing department.

## Q3. What is the most difficult thing about teaching?

**A:** At this point in my life I have recognized the most difficult part about teaching isn't the hours required to

prepare, the material to gather and teach, or the piles of exams to grade. The most difficult part about teaching is saying goodbye to the students. We have spent countless hours together, studying, reading, writing, debating, and speaking. Ending a semester and watching student's move on to their bright futures isn't easy but I'm confident in their ability for future success.

## Q4. Lastly, would you say what you want to say us?

**A:** I can say in full confidence that the nursing students here at Woosong University have drastically reshaped me and my life. I feel blessed to have been a teacher in the nursing department. Thank you is too small. THANK YOU SO MUCH! I will miss you all and I hope to see you again someday. I'm reminded of the great scholar Agnes Gonxha Bojarhiu, when I think of you students. She lived a life in a way that many wealthy people would say that she was poor. However, many people would say just the opposite. In fact, some might say she was the wealthiest person in the world. She once said, "We can do no great things, only small things with great love." I see such compassion in our classrooms. I see so much talent and ability to help those around you. I see her in all of you. I will leave you with one final quote from this scholar. Never worry about numbers. "Help one person at a time, and always start with the person nearest you." ~Agnes Gonxha Bojarhiu (Mother Teresa)

👤 reporter, Katie



# 학년별 이야기



## 1학년 박소희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커리큘럼이 많이 바쁘다는 걸 알아서인지 공부도 하면서 자기 관리도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좀 컸던 것이 사실이에요.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도 많이 들었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걱정도 많이 했는데 벌써 학기가 다 지나가고 여름학기 수업을 듣는 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대표 하면서 동기들한테 미안한 점들도 많았고 너무너무 고맙었어요. 우리 동기들과도 앞으로 우리 모두 서로 잘 지내면서 간호사 되어서도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여들야 모두 다 화이팅!!! 사랑해♥

## 1학년 김유혁

간호학도로서 내가 처음 우송대학교에 입학할 때 나는 걱정이 많았다. 우송대학교 라는 학교는 인지도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3개월을 지낸 지금 나는 재미있는 대학생활, 편안한 기숙사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야간자율학습, 영어전중수업, 원어민교수님과과의 영어수업, 풍부한 장학제도 등으로 입학 전에 가졌던 걱정들을 맘같이 씻어버렸고. 현재 우송대학교의 신입생으로서 이전의 걱정들을 완전히 털어내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1학년 나찬희

지난 학기를 돌이켜 보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얻은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간호사가 되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입학했지만,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간호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간호사의 모습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영어와의 접촉이 가장 많은 만큼 이 학교에 들어와서 가장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부분은 외국어능력입니다. 또한 영어를 비롯하여 새로운 언어를 배울 기회와, 훌륭한 원어민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강의덕분에 더욱 좋았습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 2학년 이수연

저는 아직 2기 재학생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실습실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실습실은 빨리 만들어졌고, 저희는 좋은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들어진 실습실의 시설은 아주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리고 마치 실제 병원에 온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니다. 저희 후송대 간호학과 실습실의 가장 큰 장점은 실습 기자재를 자유롭게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실습재료가 한정되어 있어 사용을 제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학교에는 실습을 하기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원한다면 언제나 실습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습을 할 때에는 각자의 실습가운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게 되는데, 저희 동기들은 한결같이 이제 자신이 진짜 전문직 간호사가 된 것만 같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습을 하게 되면서 "나의 하나의 사소한 실수가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이 가장 와 닿았습니다. 이전, 저희는 희로인으로서 모든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 2학년 안정섭

사실, '간호학과'에 들어오면서 내가 과연 어떤 수업을 듣고 무엇을 배울까 궁금한 점이 많았다. 그런데 1학년 때는 끝론 심리학이냐, 사회학이냐, 수학, 생화학 같은 '간호'랑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 같지도 않은 과목을 주로 들어서 아쉽기도 하고, 내가 간호학과 학생이긴 한 건지 의아해 하기도 했다. 지루하던(?) 1학년이 끝나고, 드디어 2학년이 된 순간! 숨이 막히도록 엄청나게 많은 공부량과 함께 실습시기가 찾아왔다. 침상정리부터, 맥박, 혈압, 혈당, 정맥주사와 수액까지 많은 걸 배웠지만, 한 순간도 놓칠 수 없었다. 교수님께서 는 매 시골 굉장히 꼼꼼히 지적하시기 때문에, 지적받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하나라도 잘라하거나 무시할 수 없었다.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느 말씀을 정신없이 적어 두고 다시 몇 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수업이 끝나곤 했다.

'아,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하는 불안한 마음에, 공강 시그에는 친구들과 함께 실습실로 향하기도 했다. 휴, 벌써 한 학기가 끝나 버렸다.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 때 익힌 어색한 손놀림으로 실습을 나가고, 간호를 해야 할 텐데 걱정이야. 다음 학기부터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뿐..... '당장 내년인데, 어수룩하고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

## 3학년 손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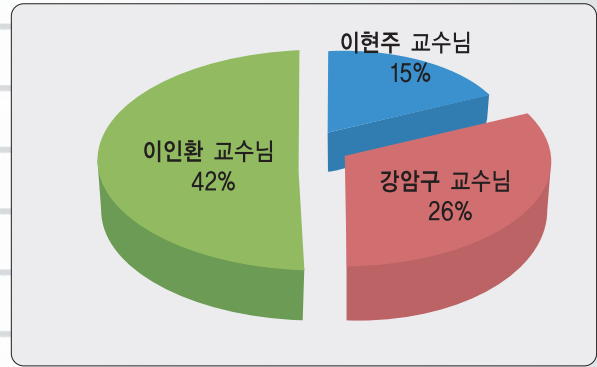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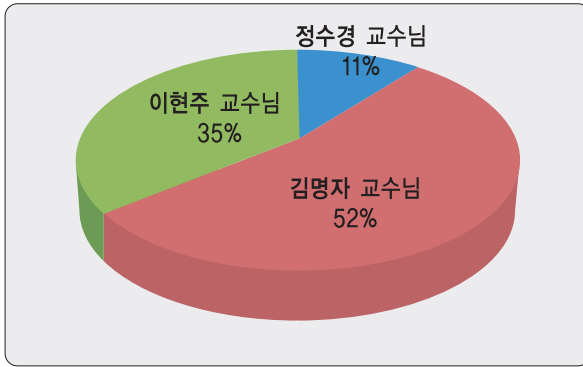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손지하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 강남세브란스 내과병동에서 실습을 하고 있고,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1기인만큼 많은 사명감과 책임감이 따르고 후배님들도 이처럼 좋은 환경에서 배우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이 좋게도, 실습 첫날 첫case 대상자 분께서 내시경적 점막절제술(EMR)을 받게 되어서 그 분을 모시고 내시경실에 가서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번우 환자분의 검사결과가 안 좋게 나왔는지 어떤 보조자 분께서 병실 밖 밖에 기대어 울고 계셨는데, 그때는 정말이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참 낭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면 할 때 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익혀서 왔었더라면 좋았을 걸.....' '조금 더 공부하고, 실습 수업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였다면 이런 순간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간호사선생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도 주의 깊게 살피고 배우고 있습니다. 간호사에게 훌륭한 간호기술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호에 있어서 '지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을 실습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고, '지혜'는 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요즘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실습을 계기로, 곧 다가올 미래의 제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체적/정신적으로도 힘되고 지치지않고 그만큼 간호학도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임하고 있습니다.

# 간호학과 이모저모

## 간호학과 앙케이트

Q 임상에서 가장 무서운 선배 간호사이셨을 것 같은 교수님은? Q 학창시절 가장 잘 노셨을 것 같은 교수님은?



Q 졸업 후 나의 진로는?

- 1위 수간호사 (26명)
- 2위 국제 간호사(미국, 캐나다 등)(24명)
- 3위 In seoul 간호사 (10명)

★ 특별한(?) 답변

- ★ 자신의 가게 운영(성심당, 파리바게트, 떡카페 등)
- ☆ 로또맞아서 병원차리기(원장되기)
- ★ 굿게 생각해보야함
- ☆ 간호 스튜어디스

Q "간호사는 000이다!"

- 간호사는 **힘들** 것이다!
- 간호사는 **멋있는** 직업이다!
- 간호사는 **바이탈**이다!
- 간호사는 **홍길동**이다!(등에 번쩍! 서에 번쩍!)
- 간호사는 **1등 신부감**이다!
- 간호사는 **내 천직**이다!
- 간호사는 **극/박**이다!

(1)	(a)		(b)		(c)		
					(2)		(d)
(3)			(4)	(e)			
	(5)						(6)
(7)				(8)		(9)	
(f)							
			(9)		(10)		(h)
(11)	(i)				(12)		
			(j)				
		(13)				(14)	

세로 열쇠

- (a) 전통문화를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
- (b) 명태의 알로 만든 것
- (c) 000칼국수
- (d) 세균, 효모, 원생동물 따위를 이르는 말
- (e) 돈 없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

- (f) 돋보기보다 훨씬 자세히 볼 수 있는 기구
- (g) 중요한 핵심
- (h) 다른 사람의 목소리 또는 짐승 따위의 소리를 흉내 내는 일
- (i) 복사나무의 열매
- (j) 옥수수를 튀겨 만든 식품

가로 열쇠

- (1) 얼굴이 예쁜 사람은 불행하거나 병약하여 요절하는 일이 많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
- (2) 물에 서식하는 포유류가 균형을 유지하거나 헤엄을 치는데 쓰는 기관
- (3) 모르는 것을 물어봄
- (4) 음식을 집어먹기 위해 쓰는 기구
- (5) 과일을 썰어 넣거나 꽃을 뜯어 만든 음료
- (6) 귀중한 물건
- (7) 기준으로 삼는 지금의 시간
- (8) 괴도라치의 새끼를 여러 마리 붙여 납작하게 만든 포
- (9) 주로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글을 쓰는데 사용되는 얇은 물건
- (10) 사람의 본성
- (11) 큰 복을 빈다는 뜻의 '景福' 이라는 두 글자를 따서 지어진 궁궐
- (12) 야외에 휴대하여 사용하는 잠자리
- (13) 몸의 길이가 보통 6~10m인 보아과의 큰 뱀
- (14) 의사의 진료를 도와주며 환자를 돌보는 사람

최고의 간호사를 향해 오늘도 달리는  
우송대 간호학과 F4를 소개합니다!



옛날보다 덜하지만, 여전히 간호학과에서 남학생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조금 쉽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간호학과에서 남학생을 찾아보기란 정말 힘들다. 대부분 남자간호학과라고 하면 모두 호기심어린 눈으로 바라보지만 전공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어느 여자간호학과 못지않다. 열정으로 똘치 남자학우들을 만나 보았다.

**Q. 간호학과에 오게 된 이유는?**

**김영균(2학년)** : 처음에 간호학과에 대해 생각한 것은 고3 6월 정도였다. 한문시간에 선생님께서 친구가 수간호사인데 자신보다 월급이 높으면서 남자들도 간호사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간호사도 괜찮겠구나 생각했다. 평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방학 때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간호학과를 선택했던 것 같다. 물론 취업이 잘된다는 점도 끌렸다. 그러다가 미국간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우송대 간호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

**여명(2학년)** : 사실 남자간호사가 있는지도 몰랐다. 남자 간호사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아버지의 친구 분과 지금은 간호사 일을 그만두신 저희 이모 때문이었다. 딱히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호기심에 간호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고, 흥미를 갖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다.

**우준원(1학년)** : 고등학교 2학년 때 까지 되고 싶은 직업이 없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간호학과 가 보라고 말했다. 친구의 한마디로, 그때부터 간호학과에 대해 조사했고, 병원에서 병동 봉사활동도 해보면서 이 길이 내 길이라고 느끼게 되어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조병근(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에게서는 행복전도사라는 목표가 있었다. 어렵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고 싶었다. 그 목표를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일의 이정표를 찾기 힘들었다. 방황하고 있는 내게 간호사인 누나들의 병원이야기는 나를 감동시켰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간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앞으로 간호사로서 환자에게 든든한 힘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Q. 간호학과에는 여자들이 많은데 불편하지는 않은지?**

**영균** : 사실 입학하기 전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 워낙 처음에 낯을 많이 가리고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남자애들 이랑만 주로 지내서 적응을 못하진 않을까 생각했었지만, 입학하고 나니 동기들이 잘 대해줘서 적응하는데 많이 힘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낯을 심하게 가리는 편이라 1년이 지났는데도 가끔은 어려울 때가 있다. 그래도 고등학교 때에 비하면 기적에 가까운 수준이다.(웃음)

**명** : 공대라든지 다른 남녀 성비가 비슷한 학과를 다녀보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또한 이러한 점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다. 다만 남자들이 부족해 체육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 한정되어 그 점이 불편하다면 불편하다고 할 수 있겠다.



조병근 (1학년) 김영균 (1학년) 여명 (2학년) 우준원 (1학년)

**Q. 졸업 후의 진로는?**

**영균** : 일단 졸업 후에 대학원도 진학하여 학위를 따고 간호사생활을 오래해서 병원에서 최대한 높은 위치로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사실 아직 간호학에 대해 많이 배우지 않고 기초를 쌓는 단계라서 어떤 분야가 나에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군대를 다녀온 후, 더 깊게 공부하면서 어떤 분야가 내게 맞는지 알아보고 진로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다. 일단은 군대가기 전까지는 학점 잘 받고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려고 한다.

**명** : 간호학과는 졸업 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선택폭이 매우 넓다. 대신 어느 정도의 임상 경력을 요하는 분야들도 있기 때문에 졸업 후 임상 경력을 쌓고 그 이후에 확실히 진로를 잡아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준원** : 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하고 싶다. 전문 간호사로서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승진해서 후배간호사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

**병근** : 종양 전문 간호사가 되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에 암 환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다. 종양 전문 간호사가 되기 위해 병원에 2년 동안의 임상경력을 쌓은 뒤, 대학원에 진학하여 더욱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

**Q. 꿈을 실현하기위해 실천해야 할 것 들은?**

**준원** : 영어를 열심히 하여 토익 900점대를 만들 것이며, 회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또한 높은 학점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 박사까지 공부 하고싶다.

**병근** :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라는 말이 있다. 내 멋대로 공부해 온 나에게서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나를 더욱 성장시켜 줄 것이라 믿고 우송대학교에서 잡아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뒤쳐지지 않게 힘쓸 것이다.

**Q. 곧 군대에 가게 되는데, 심정은?**

**영균** : 어차피 남들도 다 다녀오는 곳이기 때문에 별 생각은 없다. 2년동안 의무병으로 군생활을 하면 제대 후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의무병으로 지원해 볼 생각이다. 그런데 의무병으로 가신 선배님께서 의무병은 생일 빠른 순으로 뽑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생일이 12월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다. 아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건 복학하면 우리 동기들이 졸업하고 아무도 없어서 좀 슬플 것 같다.

**명** : 사실 아직 군대 갈 날이 많이 남아 현실적으로 와 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라리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부담 없이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3학년 국장  
장두리

### [특집호] 편집부 소개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편집부에서 인사드립니다!

2009년, 42명의 학생들과 두 분의 교수님으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역사가 시작된 이래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빠르게 지나간 기간 동안 울고, 웃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나고 생각해보니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았던 것이 후회도 되고 아쉽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함께 만들어 나갔던 그 역사들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귀감으로 삼고자  
 2011년, 편집부를 개설하여 드디어 첫 소식지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소식지 편집을 담당하게 된 편집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편집부는 학과장님을 필두로 학생의 복지를 책임지시는 김명자 교수님의 지도하에  
 3학년 소식을 맡고 있는 장두리, 소식지편집의 중심이 되는 2학년 이지원, 김규영, 유선지 그리고  
 2학년을 도와 편집부의 미래를 준비할, 1학년 지다혜, 이건우, 엄영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만드는 소식지라 그런지 처음에는 부담과 걱정이 앞섰는데요.  
 부원들끼리 다 같이 힘을 모아 한 장 한 장 열심히 만들다보니  
 이렇게 무사히 첫 창간호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저희들만의 힘으로 만들었기에 더욱 더 의미 있고 값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추억을 더욱 더 가슴깊이 세기고 우리 간호학과를 더욱 더 널리 알리자는 뜻을  
 함께 해주어 소식지 만드는데 참여해준 모든 간호학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의 관심과 도움에 힘입어 이렇게 무사히 첫 창간을 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또한, 저희 편집부는 교수님들의 소중한 가르침과 여러분들의 꿈과 노력이 담긴  
 귀중한 시간들을 소식지에 가득히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훗날 다시 펼쳐 보았을 때  
 그때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추억하며 미소 짓도록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저희가 만들어나가는 소식지가  
 교외로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를 널리 알리는 발판이자,  
 여러분들에게는 먼 훗날의 타임머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편집부 (3학년 장두리, 2학년 이지원)-

### • 제 1대 편집부 •



- 장두리  
doonggollra@hanmail.net
- 이지원  
jeewon0129@hanmail.net
- 김규영  
rbdud-\_-@hanmail.net
- 유선지  
ysj7576@nate.com
- 엄영지  
youngji9204@nate.com
- 이건우  
lgw9236@nate.com
- 지다혜  
flounder11@nate.com

WOOSONG  
NURSING DEPARTMENT